

## “고귀한 낭비”

마가복음 14장 1-11절

낭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다. 음식낭비, 돈낭비, 시간낭비 등, 누구도 낭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었던 마리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제자들의 눈에 낭비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일을 아름답다 칭찬하셨으며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도 전하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 낭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귀한 낭비**라고 부르겠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무엇을 낭비하여 드렸는가. 본문을 통해 세자가 살펴본다.

**첫째, 사랑의 마음을 쏟아버린 낭비이다.** 본문의 사건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일어났다. **1절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본문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을 말한다. 즉, 본문의 사건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몇일 전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서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이었다. 이때 예수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을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 또 본문 10-11절을 보면, 가롯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 주기로 약속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마리아였다. 마리아의 관심의 초점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였다. 그래서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가져와 드리게 된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으로 보통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였으면, 당시 여인들은 이 향유를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인 결혼식을 위해서 보관했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있는 것을 깨뜨려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한 분 되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녀의 마음 중심에만 담아 놓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이, 향유 옥합을 깨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들의 눈에 어리석고 낭비였다. **4-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롯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돈을 사랑했던 그에게는 더욱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다. 마리아의 행동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쓰인 원어는 칼로스(kalos)로서 히브리어의 토브(tov)를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때 쓰셨던 단어로, 하나님께 **완전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말한다. 즉 마리아의 행동은 사람에게서는 낭비였지만, **예수님께는 아름다운 일(a beautiful thing), 고귀한 낭비**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 일을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는 낭비이나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이 되는, **고귀한 낭비자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 둘째, 힘을 다해 깨버린 사랑의 낭비

다시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자. **5절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선한 일이다. 성경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돕고 안 돕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8절에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주님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세번이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마음속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놀라운 시간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것이다.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신 앞에 계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옥합을 지금 깨기로 결심하고 다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갔던 것이다.

### 셋째, 예수님의 사랑의 낭비

지금까지 나누었던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고귀한 낭비는 마리아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고귀한 사랑을 낭비하시도록 부어주셨다. 마리아가 옥합을 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깨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물과 피와 함께 다 쏟아 부으셨으니, 진정한 고귀한 낭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 **요일 3: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되어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낭비(lavish)하셨다**고 되어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낭비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낭비하셨다. 예수님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고 찢으심으로 고귀한 생명을 낭비하셨다.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 낭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귀한 낭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치유와 회복,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그리스도의 고귀한 낭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이다.**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가? 개인, 가정, 직장, 사업체를 위한 간절한 기도제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특새에 참석하고 부활절이 맞이하는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지 않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낭비하신 사랑은 우리의 어떤 간구보다 더 고귀하지 않는가.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소원한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일생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 드렸듯이, 주님을 향한 동일한 사랑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께 아름답게 울려 들려지기를 소원한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 피흘리사 우리를 구하셨네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  
영원히 영원히 아멘’**

## 나눔의 시간

1. 살아가며 가장 낭비한 것과 가장 아깝지 않게 드린 기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자신의 미래를 위해 두었던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낭비하여 드린 마리아를 보며 무엇을 느끼나요?
3. 죽임 당하사 피흘리신 예수님의 고귀한 낭비(보혈)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